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 입이 내게 있으면(찬23/새2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한상섭 장로 2부/이양수 집사 3부/홍승평 장로 4부/이주혜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 안에서 하나되어(Don Besig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이사무엘(Samuel Lee) 3부/오시유(Adon Oh)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7:2-10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5:38-47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Come & See 미라클(3) 예수님도 깜짝 놀란 백부장 믿음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 Solus Christus(18)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님은 누구신가(찬94/새96장),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주는 평화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랩톱이 아니라 타자기로 쓰듯이

Writing Like a Typewriter, Not a Laptop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토스카나에서의 여름〉 영화에서 한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시골 이태리를 배경으로 Harvey Keitel과 Joshua Jackson 주연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어떤 계기였는지 펜을 꺾고, 잠적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목말랐던 한 유명한 출판사에서 한 직원을 파견해서 작가를 설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출판사 직원도 평소 유명한 작가(Harvey Keitel 역)의 글에 반하여 존경하던 차에 직업의식 반, 호기심 반으로 수소문 끝에 작가를 찾아가 설득하고 글을 써달라 조르지만, 번번히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 랩톱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 직원에게 작가가 하는 말이 "컴퓨터로 글을 쓰지 말고 타자기로 쓰라" 였습니다. 컴퓨터로 쓰면 글을 고치기도 쉬운데 왜 타자기로 써야 하느냐 묻는 직원에게 "타자기로 써야 단어 선택에 더 신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40년 한 주도 빠짐 없이 썼던 설교원고들을 생각해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며 썼는지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국어사전을 옆에 두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 신중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뒤돌아 보면, 원고를 그냥 읽는 설교가 아니라, 눈을 원고에서 떼고 설교하기에 때론 틀린 단어들 이 툭툭 튀어 나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는 타자기로 페이퍼를 쓰다가, 신학원부터는 개인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으니, 저의 설교 원고는 처음부터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쌓여 있는 설교원고들을 뒤지면 얼마나 많은 오타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신중하게 메시지 전달을 위해 타자기 치듯이 적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랩톱 컴퓨터에 쓰듯 하지 말고, 지우기 힘든 타자기로 쓰듯 말을 한다면 마음에 상처로 남는, 대못 박는 말이 아닌, 생명력 있는 말,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귀한 말들로 서로 격려하고 살려 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scene from the movie *Shadows in the Sun* [Summer in Tuscany] remains in my mind. It is a beautiful film set in rural Italy, starring Harvey Keitel and Joshua Jackson. A famous author has long since "broken his pen" and gone into hiding for reasons unknown. The story follows an employee sent by a famous publisher, desperate for a bestseller, to persuade the author to return. Out of a mix of professional duty and curiosity—and as a longtime admirer of the author's work—the employee eventually tracks him down and begs him to write again, but fails repeatedly. During this process, the author says to the employee, who is working on a laptop: "Don't write with a computer; use a typewriter." When the employee asks why they should use a typewriter when it's so much easier to edit on a computer, the author replies: "Because using a typewriter makes you more careful about your choice of words."

Personally, looking back at the sermon manuscripts I have written every single week for the past 40 years, this made me reflect on how carefully I chose each word. I once heard of a pastor who kept a Korean dictionary by his side while preparing sermons, which shows just how much care he put into delivering an accurate message. Looking back, because I often preached while looking away from my notes rather than just reading them, I think there were many times when the wrong words slipped out.

I used a typewriter for papers in college, but since personal computers came out around the time I started seminary, I began typing my sermon notes on a computer from the very beginning. I wonder how many typos would be found if I sifted through the mountain of sermon manuscripts I've accumulated. Thinking of the countless biblical passages yet to be explored, I've decided that I must continue writing as if using a typewriter, choosing each word with greater care to deliver the message more deliberately.

If we spoke to one another not like writing on a laptop—where words can be easily deleted—but like writing with a typewriter—where words are hard to erase—I believe we could encourage and bring life to one another with words of vitality and deep inspiration, rather than hurtful words that leave scars like driven nails.

주일설교시리즈

COME & SEE

# 미라클 (3)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

## 예수님도 깜짝 놀란 백부장 믿음

(눅 7:2-10)

설교자: 김한요 목사

1. 군대 복무시 계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제국 당시 백부장의 위치와 비교해 보십시오.
  
2. 백부장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모습이 지혜롭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4절)
  
3. 유대인 입장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이 너그럽게 유대인을 위해 베푼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5절)
  
4. 본문 6절과 8절을 다시 읽으시고, 느껴지는 백부장의 인격을 말해 보십시오.
  
5.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6절, 9절, 참고/롬 3:10, 12, 사 40:6, 8)



■ 적용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찬94/새96장),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주는 평화

간증  
새생명 축제

# 예비하신 증거



늘 마음 한편에 기도 제목으로 두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이번 부활절에 초대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참 착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싫다며 교회 오기를 극구 거부하던 친구의 구원을 두고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베델교회 전도폭발팀과 함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왔던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복음을 들은 후 '만일 하나

님이 진짜 계시다면 믿고 싶다'며 결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온 가족 다섯 식구를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 결신 질문에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는 친구의 아내분이 전도폭발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기도 제목으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며, 자신도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새생명 축제 때 오지 않았던 또 다른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도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오면 또 갑작스럽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복음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친구들과 함께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셀모임을 나누게 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훨씬 빠르게, 또 어떨 때는 정말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를 통해 이미 그 선하신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최동주 집사

사역 스케치  
부활절/새생명 축제

# 부활의 기쁨, 복음의 씨앗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주님이 애당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간절한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절 축제에 초대할 VIP를 작성하고 모든 사역자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성된 VIP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축제 며칠 전부터 봉사자들은 VIP 환영 준비에 온 힘을 쏟아냅니다. VIP를 위한 주차 공간, VIP의 예배 지정석, 전용 휴게 공간, 새가족 등 특 부스의 예쁜 선물 가방, 사진 촬영 부스, 각종

음료와 식사, 부활절 계란 등 VIP들을 위한 최대의 환영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특히 하얀 셔츠에 다양한 색의 나비넥타이를 맨 봉사자분들의 겸손하고 환한 미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달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1부 예배에서 3부 예배까지 이어지는 VIP의 행렬은 예배 속에서부터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환한 미소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VIP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가 끝난 뒤, VIP들은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선물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사진 부스에서 남긴 한 컷의 미소는 그날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는 추

억으로 남았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VIP들의 마음에 싹트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시간보다 더 크고, 우리가 기대한 수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혜성 권사





# 하나님께서서 이어주신 우리의 4년

저희 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장년 부까지 함께 올라오며, 각 가정의 성장과 믿음의 시간을 서로 돕고 응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정을 함께해 온 4년 차 셀입니다. 청년의 때에 받은 은혜를 이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잊지 말고 더욱 누리자는 의미로 셀 이름을 '더 예 삶 셀'로 지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셀원을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진 저희는 장년부로 올라와 신혼부부 목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4년의 시간 동안 두 가정에 세 명의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

셨고,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추억과 간증을 쌓게 하셨습니다. 결혼과 출산, 가족과 직장, 그리고 신앙의 고민까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셀 목사 집사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큰 분이 되고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가장 먼저 나아가시고, 물질과 시간으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모든 가정이 매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난 4년 동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은혜와 간증들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셀 사랑합니다!

최선우 집사



## 사역 소개 차량팀

# 움직이는 교회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가복음 11:3)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순종의 마음처럼, 베델 차량팀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 차량팀은 매주 주일, 비전 주차장과 본당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성도님들께 기쁨의 라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역은 단순히 주일 주차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팀의 공항 드롭과 픽

업은 물론, BYM, CIM, 초등부 등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떠나는 여름·겨울 수련회의 안전한 이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각종 교회 행사마다 묵묵히 핸들을 잡는 저희의 사역은 단순한 운전 업무를 넘어,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도록 돕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귀중한 섬김입니다.

차량팀의 사역은 전문성과 헌신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대형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CDL(상업용 운전면허) 취득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역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매년 초 교육 클래스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필기 공부부터 실기 연습까지, 면허 취득의 전 과정을 팀원들이 함께 돕고 가르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직접 버스를 세차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도구를 정결하게 관

리합니다. 이 시간은 차량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주보에 세차 안내가 나갈 때마다 차량팀원 뿐만 아니라, 참된 섬김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거품을 내고 닦아내며 교회의 자산을 아끼는 이 시간은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친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 운행'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듯,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핸들을 잡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운전대를 쓰겠다" 하실 때,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이 복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미소로 맞이하는 차량팀이 되어, 베델의 모든 사역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심진규 집사

예살  
엘리사 새벽기도회

# 하나 됨의 기쁨

이번 예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놓치기 쉬운 예배의 자리였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그 소중함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은혜 위에 더해진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 됨의 기쁨'입니다. 예살 청년들 안에서의 하나 됨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베델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 되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살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후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장년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통해 예살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까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

년들은 베델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살에 이어 진행된 청 2 수양회 기간에도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 수양관까지 올라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담당 전도사로서, 청년들이 장년 성도님들의 사랑과 베델교회의 따뜻함을 함께 누리며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음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이러한 섬김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타지 생활을 오래 한 한 청년이 "부모님이 해주신 것 같은 집밥을 먹어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공동체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살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살도 함께 섬기며 '하나 됨의 기쁨'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최요셉 전도사



교회학교 - BYM HS  
교사 간증

##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들!

고난주간 동안 온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BYM 고등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목회자 분들과 교사들, 학생들 모두 눈물로 하나님께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BYM 중등부, 고등부, CIM 교육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보바 음료와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 남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었기에, 학생들 마음속에 주일 말씀이 들어가고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만가지 고민거리, 남들의 시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가장 크게 요동칠 수 있을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받고 한층 더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음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기에 자칭 최종 방어선이라 불리는 주일 학교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는 저로

서는 너무나도 안심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이 공감하시라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 없이는 제가 하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고, 주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학생들도 복음이 그저 물려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보내진 저와 모든 교사들의 역할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영록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102차 베델동산

베델교회의 영성 프로그램인 베델동산이 5월 22일(금)에 열립니다. 베델동산은 거친 인생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가정과 직장을 잠시 떠나 레이크 엘시노가 보이는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 101차 베델동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가자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델동산 참가 대상자는 아직까지 베델동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봉사자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할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델동산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봉사자들의 진실된 섬김을 받게 됩니다.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를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이 신청서에 적어 주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천국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주저하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초청합니다.



- ▶ **일정:** 5월 22일(금) 오후 - 5월 24일 (주일) 아침
- ▶ **대상:** 베델동산을 참석하지 못한 모든 베델 성도
- ▶ **장소:** 갈릴리 수양관(출발은 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 ▶ **봉사자모임(3회):** 5월 7일(목), 5월 14일(목), 5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 (7시부터 식사 제공)
- ▶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 (949)838-4110



〈봉사자〉



〈참가자〉

예배 봉사자

<b>주일예배 대표기도(4,5월)  </b>	4/26: ①부-최동주	②부-구윤모	③부-최호경	④부-김도윤
	5/3: ①부-최재호	②부-이명환	③부-황인수	④부-최현우
	5/10: ①부-권조원	②부-권순렬	③부-최두현	④부-이지원

<b>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b>	4/25: 배진용	5/2: 김교식	5/9: 서덕령	5/16: 석민석
<b>강단꽃(4,5월)  </b>	4/19: 김동심, 노성애, 조미리	4/26: 오영옥	5/3: 노성애, 전정례	5/10: 이선옥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 준(한의사),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박필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밭살레야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Come and See 50!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파송·협력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자 100여 분을 모시고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선교지의 헌신과 이민 목회의 열정이 만나 사역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선교의 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희년의 잔치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사역자들이 참된 안식과 새로운 비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장소: 2026년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베델교회
집회: 4월 30일(목)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5월 1일(금) 새벽 집회-오전 5시 30분,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5월 2일(토) 특별 오이코스-오전 6시, 저녁 집회-오후 7시 30분
주제 특강 및 선교사와의 만남: 5월 2일(토) 오전 9시-12시

◆ 특별 오이코스(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이번 오이코스는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부터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중에는 충성 & Joy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4월 28일(화)-30일(목)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충성 & Joy 목장(서동민 목사 담당)
특별 오이코스 예배 일시/장소: 5월 2일(토) 오전 6시, 본당

◆ 교회학교 VBS 등록 2026 VBS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타 교인들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모든 베델의 자녀들이 VBS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영유아유치 VBS 6월 9일(화)-12일(금), K-5 VBS 6월 16일(화)-20일(토)
등록/문의: register.bkc.org, 각 부서 전도사

◆ 베델한국학교 여름 캠프 및 교사 모집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원한 여름캠프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TA로 섬길 분들도 모집합니다.
학기 일정: 7월 6일(월)-7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4주, 월-금)
등록기간/등록금: 4월 6일 오전 9시-4월 24일 오후 9시, \$950
등록처/문의: koreanschool.bkc.org, 윤주원 장로 (949)892-9516

◆ 캄보디아/태국 단기선교 팀원 모집 8월에 진행되는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황순현/황현주 선교사)
기간/문의: 8월 4일(화)-11일(화), 김태원 장로 (760)707-7070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기간/문의: 8월 10일(월)-18일(화), 김재호 집사 (714)512-7095

◆ 주빌리 페스티벌 및 교회학교 저녁 특별 집회 싱그러운 5월의 첫날,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웃고 예배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는 '주빌리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빌리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베델교회의 희년을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놀이, 그리고 깊은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발걸음해 주세요.
<주빌리 페스티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
- 일시/대상: 5월 1일(금) 오후 5시부터 7시 15분까지,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가정
- 즐길 거리: 바운스 하우스, 음식 및 음료, 풍선 아트, 네일 아트, 포토부스
<저녁 특별 집회: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 일시: 5월 1일(토) 오후 7시 30분-9시 15분
- 예배 장소: 영유아 & 유치부-할렐루야 채플, K-5 -체육관, BYM & CIM-비전채플

◆ 102차 베델동산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간: 5월 22일(금)-5월 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949)838-4110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 490-9931



◆ 큐티인 5월호 판매 QTin 5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채우시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정기 제직회 4월 25일(토) 토요 헬스바 기도회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김현승/이선우 집사 가정에 아들 민우(M.J)가 4월 12일 (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오늘 2부 예배에 이우용/조수진 집사의 아들 이사무엘(Samuel)과 3부 예배에 오태환/장해인 집사의 아들 오시유(Adon)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주룡 집사님(김명선 권사의 남편)께서 4월 15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우수국 집사님(우인에 집사의 남편)께서 4월 16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 & Training, VBS,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What was your rank during your military service? Compare it to the position of a centurion during the Roman Empire.

Apply to Life



**2.** Why can the centurion's approach to Jesus be considered wise? (v. 2-4)

**3.**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ews, the centurion was a Gentile. Nevertheless, the centurion was recognized as someone who generously showed kindness to the Jews. What is the reason for this? (v. 5)

**4.** Read verses 6 and 8 again, and describe the character of the centurion as you perceive it.

**5.** It is written that Jesus was surprised at the centurion's faith. Why was He so surprised? (v. 6, 9, Ref: Rom 3:10, 12, Isa 40:6, 8)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